

■ 제주시 이호동~한경면 해안 따라 둘러보니...

청정바다 이미지 실종... 쓰레기로 범벅

쓰레기 대부분 플라스틱... 중국발 쓰레기 가득

겨울철을 맞아 북서풍의 영향으로 제주해안에 떠밀려온 각종 쓰레기들이 치워도 계속 쌓이면서 조속한 수거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11일 제주시 이호동부터 한경면까지 해안도로를 따라 살펴본 결과 플라스틱, 폐어구 등 각종 쓰레기들이 긴 띠를 이루고 널려있었다.

바다 위에 떠다니는 플라스틱들은 파도와 함께 갯바위로 떠밀려오면서 큰 소리를 내기도 했으며, 그물 부표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흰색 스티로폼들은 바위틈에서 작은 알갱이로 부서져 있어 미세플라스틱 발생이 우려되기도 했다. 쓰레기 대부분은 플라스틱이었고, 10개 중 9개꼴로는 중국어 라벨이 붙어있는 중국발 쓰레기였다.

관광객들이 많은 이호테우해수욕장이나 금능해수욕장 등은 수거된 쓰레기들이 마대에 담겨 쌓여있었지만 일부는 남아있었고, 읍면지역으로 갈수록 방치된 쓰레기들이 다수 발견됐다. 특히 제주시 한경면 고산1리 한장동은 쓰레기들로 해안가 대부분이 덮이는 등 상황이 매우 심각했다.

제주시 애월읍 가문동포구 주변

은 관광객들이 음식 등을 먹고 버린 듯한 생활쓰레기와 파도에 떠밀려온 해양쓰레기들이 섞여 있었다.

제주는 겨울철이면 부는 북서풍의 영향으로 해양쓰레기들이 매년 유입되고 있다. 특히 제주시 동쪽과 서귀포시보다는 제주시 서쪽이 쓰레기 유입이 많은 편이다. 실제로 한경면을 벗어나 서귀포시에 진입하자마자 해양쓰레기는 눈에 띄게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11일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는 지난해 기준 해양쓰레기만 7278t이 발생했다. 도는 바다환경지킴이를 고용해 해양쓰레기 수거에 나서고 있지만, 이들의 활동 기간은 3월~10월로 겨울철인 11월~2월에는 예산 등의 문제로 각 읍면동에서 일시적 인부를 투입하면서 해양쓰레기 수거가 적극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도 관계자는 “올해 예산이 좀 더 확보돼 바다환경지킴이를 작년보다 37명 늘어난 273명을 고용할 계획이다”면서 “채용이 완료되는 대로 빠른 시일 안에 쓰레기를 수거하겠다”고 말했다.

김채현기자 hakch@ihalla.com



제주시 한경면 고산1리 한장동 해안으로 밀려 온 쓰레기들.

강희만기자

오늘의 날씨와 생활

1월 12일 금요일 음 12월 2일 (9월)

기상정보



구름많음

제주는 구름 많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5-8℃, 낮 최고기온은 12-14℃로 전망된다. 오후에는 차차 흐려지겠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 북부와 동부 해상에서 0.5-2.0m로 일겠다.

오전	강수 확률	오후
30%	제 주	20%
20%	성 산	20%
30%	고 산	20%
20%	서귀포	20%

해돋이 07:39	달뜨기 08:28
해질 17:45	달지기 18:29
물때 만조 11:38	간조 05:05
23:14	18:05

식중독지수 주의	감기가능지수 주의
----------	-----------

주간예보	<문의 ☎ 국번없이 131>
내일 맑음	4/11℃
모레 맑음	6/17℃

미세먼지 (PM10)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초미세먼지 (PM2.5)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전통시장 갑시다!!

전통시장명	장서는날
제주시민속오일장	2, 7
한림민속오일장	4, 9
세화민속오일장	5, 10
함덕오일장	1, 6
고성오일장	4, 9

전통시장명	장서는날
서귀포향토오일장	4, 9
성산오일장	1, 6
중문향토오일장	3, 8
표선오일장	2, 7
대정오일장	1, 6

중부공원 아파트 분양가 협상 타결

제주시-업체, 3.3㎡당 2574만원 이하 합의
분양물량 728세대... 전용면적은 84~124㎡

제주도 내 최초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으로 추진 중인 중부공원 내 아파트 분양가에 대한 협상이 타결됐다. 이에 사업자 측은 이를 토대로 총사업비(당초 3772억원)를 재산정하고 착공신고와 함께 분양에 나설 전망이다.

제주시와 제주중부공원개발 주식회사는 지난 10일 그동안 협상 중 난제였던 아파트 분양가를 지난해 제주지역 민간 아파트 평균분양가인 3.3㎡당 2574만원 이하로 낮추는데 합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전체 사업부지는 21만4200㎡(공원시설 16만9256, 비공원시설 4만4944) 규모이며, 아파트는 비공원시설 내에 지하 4층, 지상 15층, 12개동으로 조성된다.

분양 물량은 728세대(임대 75세대 포함)이며 전용면적은 84~124㎡다. 전용면적 85㎡ 기준 분양가는 7억원(3.3㎡당 2400만원대)대로 추산된다.

중부공원에 들어서는 아파트 분양가에 대한 협상이 타결되면서 향후 오등봉공원(임대주택 141세대 포함 1401세대) 아파트 분양가에도 적용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공원 조성은 물론 사업지구 내 위치한 제주아트센터와 제주한라도서관 리모델링 비용 등을 감안하면 중부공원보다는 분양가가 더 높게 책정 될 것으로 보인다.백금탁기자

사랑으로 지은 집
사랑으로 가득한 집

부영 사랑으로

“고교학점제 안착, 교원수급에 달려”

제주교육정책연구센터 도내 일반고 교육과정 분석
“공립고는 교원 순환·유동적... 사립고는 채용 부담”

내년 전면 시행을 앞둔 고교학점제가 안착하기 위해서는 학점제 교육과정을 반영한 원활한 교원 수급이 우선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내용은 11일 제주융합과학연구원 제주교육정책연구센터가 공개한 '2023 하반기 교육정책 연구 보고서' 연구 주제 가운데 '고교학점제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실태 분

석: 제주지역 일반고등학교를 중심으로' (문보경 연구원)에 제기됐다.

고교학점제란 학생이 진로·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 기준에 도달한 과목의 학점을 취득하면 졸업하는 제도다. 직업계고의 경우 2022학년부터 이미 전면 시행되고 있고 2025년부터 일반고에도 전면 시행된다.

우선 일반고 고교학점제 교육과정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자원은 교원·학생·시설로 분류됐는데, 이 중에서도 '가르칠 수 있는 선생님'이 우리 학교에 있느냐, 즉 교원수급이 학점제 운영의 가장 큰 요인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교 설립 차이, 즉 공립·사립별 교원 수급 방식에 따라 교육과정 편성·운영 방식 차이가 두드러지는 모습을 보였다. 국립고의 경우 교육부, 공립고는 교육청이 운영하면서 교원 인사가 유동적인 반면,

사립고는 사립학교 재단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일관된 교원 수급의 기준을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고교학점제는 학생들이 과목을 선택하는 방식이지만, 이에따른 전공 교사 수를 매년 조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사립학교에서는 변화하는 교과 담당을 대부분 기간제 교사와 순회 교사가 대체해야 하는 실정이었다.

또 교원 수는 학생 수와 함께 지역적 격차에 미치는 큰 영향 요인으로 꼽혔다. 특히 소규모 읍면지역 학교의 경우 전공 교사의 유무가 학급 편성과 시간표 편성을 크게 좌우했다.

강다혜기자

친환경 축산, 청정 제주 축산

2024

2024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희 제주특별자치도축협조합협의회는 우리의 생명산업을 지켜가는 사명과 의지로
고객에게 신뢰와 믿음을 줄 수 있는 늘 푸른 이웃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축협조합협의회

서귀포시축산업협동조합장 김용관

제주양돈축산업협동조합장 고권진

제주축산업협동조합장 천창수